

#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 2023년 세계 주요 도시 시장 신년사(요약) - 아시아

**상하이시** - 최저 성장률 극복하고 과감한 시장 개방 추진

**충칭시** - 성장률 저조했으나 GRDP는 중국 4위 올라

**베이징시** - 대도시병 해결 위해 비수도 기능 분산에 중점

**선전시** - 투자와 대외 수출로 성장하고 환경 중시하는 시정 방향

**도쿄도** - 도전 정신·공감에 기반하여 도정 이끌 것

##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 〈북아메리카〉

#### 미국

매디슨·시카고	조민서
샌프란시스코	송태수
시카고	강기향
포틀랜드	김규리
	김현철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 캐나다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 〈아프리카〉

#### 케냐

나이로비	한 울
------	-----

### 〈오세아니아〉

####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황현정
-----	-----

### 〈아시아〉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	-----

#### 싱가포르

싱가포르	이지은
------	-----

#### 인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박재현
------	-----

#### 일본

도야마	서유환
도쿄	김영준

#### 중국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충칭	모종혁

### 〈유럽〉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장한빛
-------	-----

#### 독일

베를린	홍남명
슈투트가르트	정운주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 스페인

바르셀로나	진광선
-------	-----

#### 이탈리아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 프랑스

파리	김나래
	정연주

# 최저 성장률 극복하고 과감한 시장 개방 추진

중국 상하이시 / 긍정 시장 / 신년사

상하이시는 2022년 지역내총생산(GRDP)이 0.2% 증가에 그침. 이는 중국 주요 도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2022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라 두 달 넘게 도시가 전면 봉쇄되면서 도시의 모든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 2023년 GRDP 성장 목표치는 5.5% 안팎이며, 중국이 리오프닝<sup>1)</sup>에 들어가고 내수 확대와 소비 부양을 예고하면서 상하이시도 과감한 시장 개방 추진키로 함

## 2022년 상하이시가 거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성과

- 상하이시 긍정(龔正) 시장은 신년사에서 2022년 상하이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년보다 0.2%가 늘어난 4조 4,500억 위안 안팎이라고 밝힘
  - 상하이시 통계국 발표 ‘상하이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공보’에 따르면 2022년 상하이시 GRDP는 4조 4,652억 위안(약 842조 920억 원)으로, 중국 전체 도시에서 부동의 1위 고수
    - 하지만 GRDP 증가율은 중국 전체 GDP 성장률인 3.0%에 한참 못 미쳤고, 중국 내 4개 직할시<sup>2)</sup>와 주요 도시 중에서도 가장 낮았음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2022년 3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상하이시가 전면 봉쇄되면서 도시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
  - 2022년 상하이시의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보다 -1.0%, 사회소비품 판매총액은 -9.1%로 역성장을 했고, 수출입 총액은 1.9% 증가에 그쳤음
    - 중국 최대 주식시장인 상하이증시<sup>3)</sup>에서의 거래액은 2,932조 위안으로 전년보다 16.8% 증가
    - 외국인 직접투자도 전년보다 24.8% 늘어나는 등 중국에서 가장 개방적인 경제 체제를 갖춘 상하이시에 대한 해외의 기대가 여전히 크다는 걸 보여 줌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중국 전체 평균치인 2.0%보다 0.5%가 높았고, 도시 봉쇄 영향으로 새로운 일자리는 지난 5년 사이 최저치인 56만 3,500개 창출에 그침

1) ‘리오프닝(Reopening)’은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진행됐던 도시 봉쇄가 워드 코로나 정책을 추진하면서 해제되어 경제 및 사회 활동, 대외 교류 등이 전면 재개되는 현상을 가리킴

2) 중국 내 직할시는 4개로 베이징시,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3) 중국에는 한국의 코스피에 상응하는 상하이증시 외에 코스닥 및 장외시장과 유사한 선전증시, 베이징증시가 있음

-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가 크게 늘면서 실업률은 중국 전체 평균인 4.7%보다 약간 높은 4.9% 기록

[표] 2021년과 2022년 상하이시 도시 현황 비교 (출처: 공정 시장 신년사와 상하이시 통계공보 종합)

	2021년	2022년
상주 인구(명)	2,489만	2,475만
GRDP(위안)	4조 3,214억	4조 4,652억
경제성장률(%)	8.1	0.2
1인당 GDP(위안)	17만 3,757	18만 412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8.1	-1.0
사회소비품 판매총액 증가율(%)	13.5	-9.1
수출입 총액 증가율(%)	17.3	1.9
소비자물가 상승률(%)	1.2	2.5
실업률(%)	2.7	4.9

## 2023년 상하이시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목표

- 공정 시장은 신년사에서 2023년 상하이시 GRDP 성장 목표치를 중국 정부 목표치보다 0.5% 높은 5.5% 안팎으로 제시
  - 지방일반 공공예산수입의 증가율은 5.5% 이상, 전 사회 연구개발경비지출은 상하이시 전체 GRDP의 4.3% 안팎, 환경보호를 위한 지출은 상하이시 전체 GRDP의 3% 안팎으로 제시
    - 상하이시는 수년 전부터 중국 내 다른 도시와 달리 시장의 신년사에서 GRDP 성장 목표치만 제시함. 실물 경제지표를 보여 주는 공업생산(제조업), 고정자산투자(투자), 사회소비품 판매총액(소비), 수출입총액(대외무역) 등 4대 항목의 목표치를 대신해서 ▶지방일반 공공예산수입, ▶전 사회 연구개발경비지출, ▶환경보호를 위한 지출을 제시하고 있음
  - GRDP 목표 성장치 달성을 위해 더욱 과감한 시장 개방 추진. 자국 통화인 위안(元)화의 대외무역 결제와 해외 용자 서비스, 25개 대기업의 개방혁신센터 신설,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화 등을 제시
    - 상하이시가 이런 청사진을 제시한 데는 코로나19 사태 이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강압적인 도시 봉쇄로 일관했던 중국 당국이 1월부터 전면적인 리오프닝에 들어갔고, 3월 양회<sup>4)</sup>에서 중앙정부가 내수 확대와 소비 부양을 위해 공격적 시장 개방을 예고했기 때문

4) '양회(兩會)'는 형식상이긴 하지만,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의 국가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全國人民代表大會)와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政協)가 매년 3월에 여는 정기 회의를 가리킴

- 1인당 주민 평균소득은 GRDP 목표 성장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시키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안팎으로 잡으며, 실업률은 5% 이내 유지를 목표로 삼음
  - 긍정 시장은 과거 신년사에 없던 구체적 민생정책을 제시하여 취업 계층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55만 개 이상 창출하고, 양로와 육아 서비스를 강화하여 새 양로 시설 자리 5,000개와 탁아시설 자리 3,200개 신설을 약속
    - 시민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2만㎡의 도심 지역 낡은 주택의 개조사업과 28만㎡의 교외 부실한 주택 개조사업을 진행하고, 장기 임대주택 7만 5,000채를 새로 공급하기로 함

<https://www.shanghai.gov.cn/nw12336/20230117/b511b08dd4e54a13bc592fed41ce2510.html>

[https://mp.weixin.qq.com/s?\\_\\_biz=MzA4ODM0Mzk3Ng==&mid=2650785584&idx=1&sn=a285cec940963c12a727c9b18f43a987&chksm=8820f3f7bf577ae13772af69935fa04a225881b16bd5a502df7e1d32a5bef40dcbfd52928166](https://mp.weixin.qq.com/s?__biz=MzA4ODM0Mzk3Ng==&mid=2650785584&idx=1&sn=a285cec940963c12a727c9b18f43a987&chksm=8820f3f7bf577ae13772af69935fa04a225881b16bd5a502df7e1d32a5bef40dcbfd52928166)

<https://tjj.sh.gov.cn/tjgb/20230317/6bb2cf0811ab41eb8ae397c8f8577e00.html>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 성장률 저조했으나 GRDP는 중국 4위 올라

중국 충칭시 / 후형화 시장 / 신년사

충칭시는 2022년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년보다 2.6% 상승에 그쳤으나, 다른 주요 도시의 GRDP 성장률은 더욱 저조하여 사상 처음으로 중국 전체 도시 중 4위 차지. 2023년 GRDP 성장 목표치는 중국 전체보다 높은 6% 안팎이며, 어려운 대내외 환경 때문에 제조업과 투자에 의존할 예정. 인구 정체에서 탈출하기 위해 과거 신년사에는 없던 청소년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구체적 민생정책 제시

## 2022년 충칭시가 거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성과

- 후형화(胡衡華) 시장은 신년사에서 2022년 충칭시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년보다 2.6% 늘어난 2조 9,100억 위안 안팎이었고, 1인당 주민 평균소득은 9만 663위안(약 1,709만 원)으로 전국 평균<sup>1)</sup>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힘
  - 3월 17일 충칭시 통계국이 발표한 ‘충칭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공보’에 정확한 GRDP 수치가 실렸는데, 2022년 충칭시 GRDP는 2조 9,129억 위안(약 549조 3,438억 원)을 기록
    - 충칭시의 GRDP 증가율은 중국 전체 GDP 성장률인 3.0%에 못 미쳤지만, 중국 내 4개 직할시<sup>2)</sup> 중에서는 가장 높았음
    - GRDP 규모로는 내륙지역 도시 중에서 1위였고, 중국 전체 도시 순위에서 오랫동안 4위였던 광저우시를 밀어내며 처음으로 5위에서 4위로 올라섰음
  - 충칭시의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보다 4.7%, 사회소비품 판매총액은 7.3% 증가했지만, 수출입 총액은 2.0%가 늘어나는 데 그침
    - 2021년에는 사회소비품 판매총액이 18.5%, 수출입 총액이 22.8% 증가하면서 소비와 무역이 경제 성장을 주도했으나, 2022년에는 반대로 사회소비품 판매총액 증가율이 작아지고 수출입 증가율이 정체되면서 성장에 발목이 잡힘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중국 전체 평균치인 2.0%보다 약간 높았고, 70만 6,7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 GRDP 성장률이 이전보다 훨씬 낮아지면서 2021년보다 새 일자리 수는 5.9% 감소하고 실업률은 5.4% 기록. 이는 중국 전체 평균인 4.7%보다 0.7% 높았음

1) IMF의 <2023년 세계경제전망(WEO)>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 2,608달러(약 1,636만 원)로 세계은행이 정한 고소득국 기준인 1만 3,205달러에 육박

2) 중국 내 직할시는 4개로 베이징시,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표] 2021년과 2022년 충칭시 도시 현황 비교 (출처: 후형화 시장 신년사와 충칭시 통계공보 종합)

	2021년	2022년
상주 인구(명)	3,212만	3,213만
GRDP(위안)	2조 7,894억	2조 9,129억
경제성장률(%)	8.3	2.6
1인당 GDP(위안)	8만 7,021	9만 663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6.1	4.7
사회소비품 판매총액 증가율(%)	18.5	7.3
수출입 총액 증가율(%)	22.8	2.0
소비자물가 상승률(%)	0.8	2.1
실업률(%)	2.9	5.4

### 2023년 충칭시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목표

- 후형화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3년 충칭시 GRDP 성장 목표치를 6% 안팎으로 제시. 이는 중국 전체의 2023년 GDP 성장 목표치 5% 안팎보다 높음
  - GRDP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공업생산 증가율은 8% 안팎,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0% 안팎, 사회소비품 판매총액 증가율은 6% 안팎, 수출입총액 증가율은 3% 안팎으로 제시
    - 중국 도시 시장의 신년사에서는 GRDP 성장 목표치와 구체적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해 정책 목표임. 따라서 실물 경제지표를 보여 주는 ▶공업생산(제조업) ▶고정자산투자(투자) ▶사회소비품 판매총액(소비) ▶수출입총액(대외무역) 등 4대 항목의 목표치를 해마다 제시
    - 목표치를 분석해 보면, 후형화 시장은 올해 중국 내 소비와 대외무역 환경이 2022년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 따라서 전통산업과 IT산업이 고루 발전한 충칭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조업과 투자의 목표치를 높게 잡음
    - 실제로 제조업 투자 증가율은 12% 이상으로 설정했고, 안정적 부동산 투자와 민간자본 투자 유인이 필요하다고 지적
- 1인당 주민 평균소득 증가율은 6% 안팎,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이내 억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60만 개가 목표
  - 후형화 시장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과거 신년사에 없던 청소년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구체적 민생정책 제시
    -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초중등 학생의 사교육 및 숙제 부담 줄이기(雙減) 위한 교육 시스템 개혁을 가속화하고 대대적인 청소년의 심리건강 교육을 전개
    - 장기 임대주택 8만 1,000채를 새로 공급하고, 공영 유치원 비율을 53%까지 끌어올리며, 1만 6,000개 유아(幼兒) 육아 자리를 신설하겠다고 약속

[http://www.cq.gov.cn/zt/jj2023cqlh/gzbgjd/202301/t20230120\\_11529126.html](http://www.cq.gov.cn/zt/jj2023cqlh/gzbgjd/202301/t20230120_11529126.html)

[http://www.cqyz.gov.cn/zwx\\_229/zyyw/202301/t20230115\\_11505151.html](http://www.cqyz.gov.cn/zwx_229/zyyw/202301/t20230115_11505151.html)

[http://www.cq.gov.cn/ywdt/jrcq/202303/t20230317\\_11775541.html](http://www.cq.gov.cn/ywdt/jrcq/202303/t20230317_11775541.html)

---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mailto:jhmo71@naver.com)



## 대도시병 해결 위해 비수도 기능 분산에 중점

중국 베이징시 / 인용 시장 / 신년사

베이징시는 그동안 대도시병<sup>1)</su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허베이성에 국가급 신규인승안(雄安)경제신구를 설립하는 등 비수도 기능 분산에 중점을 두고 있음. 베이징시 인용(殷勇) 시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5년간의 기초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앞으로 5년도 제조업·도매업·교육·의료 등 비수도 기능을 톈진시·허베이성 등 주변 지역으로 분산시킬 계획을 발표. 이에 따라 올해는 톈진시·허베이성과 함께 오염 공동 예방·통제와 생태 환경 공동 건설을 심화시키고 교육과 의료 및 기타 공공 서비스의 공동 건설·공유 촉진 등을 계획

### 지난 5년(2017~2022년)을 회고: 비수도 기능 분산 등

- 올해는 양회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해<sup>2)</sup>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는 해. 이에 따라 베이징시 인용 시장은 이번 신년사에서 지난해뿐 아니라 지난 5년을 회고
  - 지난 5년 동안의 성과
    - 4개 중심(전국정치·문화·국제교류·과학기술혁신의 중심 등) 기능의 건설 대대적 강화
    - 4개 봉사(당·정·군 지도기관 업무, 국가의 국제교류, 과학기술과 교육 발전, 인민 대중의 생활 개선 위한 봉사 등)의 수준 높임
    - 비수도 기능 해소를 중심으로 징·진·지(京·津·冀, 베이징시·톈진시·허베이성) 협동 발전 추진
    -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의 전면적 완성(2020년)을 위해 중대한 위험의 예방과 빈곤 퇴치 및 오염 방지 실천
    - 과학기술 수준이 반영된 국제과학혁신센터 건설, 양구(서비스 산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구와 자유무역 시범구) 건설, 디지털 벤치마크 도시로의 탈바꿈, 공급 구조 개혁으로 새로운 수요 창출, 징·진·지 협동 발전 등 다섯 가지 분야의 연동
    - 국내·국제 생산과 소비의 순환 상호 촉진 등 쌍(雙)순환으로의 진입 견지
  - 이에 따라 지난해 베이징시의 총생산은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예상. 공공예산 수입은 전년 대비 2.6% 증가, 주민 소비자물가지수는 1.8% 상승, 실업률은 5%

1)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인구팽창·교통체증·주택난·물가상승·환경오염·자원부족 등의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

2) 3월에 연례행사로 거행되는 양회(전인대, 정협)는 한 해 중국 정부의 운영 방침이 정해지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임기는 각각 5년으로 5년마다 새로운 회기가 시작.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해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 등을 포함한 새로운 지도부 선출

이내로 유지 예상.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안정적으로 증가

-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
  - 발전 과정에 어려움과 도전이 있고 업무 수행에 문제와 결함이 있음을 인식
  - 4개 중심 기능 건설과 4개 봉사 수준이 당과 인민의 요구에 비해 차이가 있음
  - 경제 회복 기반이 아직 안정적이지 않고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과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
  -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고(高)정밀 산업 발전 결합의 강화 및 핵심 분야의 난제 돌파 필요
  - 보건·의료·환경·교통·양로 분야에 많은 단점이 있고, 도시와 농촌 지역의 발전 불균형·층분 문제가 여전히 존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

### **앞으로 5년(2023~2028년)간 계획: 비수도 기능의 분산 부단히 추진 등**

- 신년사에서 2023년 계획뿐 아니라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보고
  - 4개 중심 기능의 건설 강화, 4개 봉사 수준 제고, 더 높은 차원의 징·진·지 협동 발전 추진, 다섯 가지 분야의 연동과 쌍순환으로의 진입 견지
  - 이에 따라 올해 목표는 총생산 전년 대비 4.5% 이상 증가, 공공예산 수입 전년 대비 약 4% 증가, 실업률 5% 이내로 억제, 주민 소비자물가지수 약 3% 증가, 주민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의 동기화, 생태환경·에너지·수자원 등 지표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사항 이행
  - 2023년 올해 계획
    - 수도 기능의 지속적 제고: 3구(도시·농업·생태 공간) 3선(도시개발경제·영구기본 농지·생태보호레드라인) 구획의 엄격한 시행. 도시와 농촌의 건설용지 약 8km<sup>2</sup> 더 감소. 핵심지역(공공활동이 가장 집중된 지역)의 4가지 밀도(인구·건축·상업·관광) 낮추기. 2,000가구의 단층 주택 임대료 반환과 1,200가구 수리 진행
    - 비수도 기능의 체계적 분산: 더욱 긴밀한 징·진·지 협동 발전 구도의 구축. 불법 건설 2,000만m<sup>2</sup> 이상과 토지 2,000ha(헥타르) 이상을 비우고, 379ha를 그루터기로 남겨 두고 녹색을 증가시킴. 새로운 불법 건설에 무관용 달성. 100개 이상의 일반 제조업 기업의 분산과 품질 제고 촉진. 일괄수주계약으로 승안경제지구에 병원 건설과 베이징시-승안경제지구 고속도로 개통 실현. 베이징시·톈진시·허베이성의 오염 공동 예방·통제와 생태 환경 공동 건설 심화하고 교육과 의료 및 기타 공공 서비스의 공동건설·공유 촉진
    - 과학기술·교육: 과학기술과 교육 및 인재 지원 강화와 국제 과학기술 혁신 센터 건설 가속화. 선행학습 자원의 배치 확대하고 선행학습의 보편적 발전 위한 지원

정책 개선. 쌍(雙)감(초·중·고등학교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들에 대한 과중한  
숙제 부담과 사교육 부담의 효과적 감소) 정책의 성과 제고를 공고히 함. 초·중·  
고등학교 학위 2만 개 추가. 교장과 교사의 순환 비율 확대로 의무교육의 질적  
발전을 균형 있게 추진. 국제 과학기술 혁신 센터의 건설 추진

- 경제: 내수 확대에 주력하여 경제 운영의 전반적 호전을 적극 추진. 국제 소비 중심  
도시 건설 가속화. 상권 개조·개선 조치 심화. 시범적으로 80개의 ‘15분 편리한  
생활권’을 건설하여 생활 서비스 산업의 질 향상. 디지털·문화·녹색·빙설 소비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소비의 교차·융합 강화. 주택 개선과 신에너지 자동차 및  
노인 요양원 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 지원
- 개혁·개방: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 규칙·규제·관리·표준 등 제도적 개방의  
선제적 시범을 적극 전개. 양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구와 디지털 무역 시범구의 건설을 위해 노력. 독일·일본과의 국제 협력 산업  
단지 건설 가속화
- 도농 발전: 도시와 농촌의 통합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농촌 활성화를 전면적  
으로 추진. 농촌 가두 100만㎡ 건설. 150개 농촌 마을 하수처리 실시와 농촌 마을  
1,000가구 개조·개선. 산악 지대 마을 1만 5,000가구의 청정·난방 시설 개조  
완료. 도시의 학교와 보건소가 농촌의 학교와 보건소를 돕고 지도하도록 실시

# 투자와 대외 수출로 성장하고 환경 중시하는 시정 방향

중국 선전시 / 탄웨이중 시장 / 신년사

선전시는 2022년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년보다 3.3% 늘었는데, 이는 고정자산투자와 대외 수출이 견고하게 성장한 덕분.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GDP는 광둥성 내에서 가장 높은 18만 3,188위안을 달성. 2023년 GRDP 성장 목표치는 6% 안팎으로 제시했는데, 막대한 R&D 투자를 통해 제조업의 혁신을 더욱 추진할 예정. 또한 매년 신년사에서 정확한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공개하고 새 목표를 제시하여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시정 방향을 보여 줌

## 2022년 선전시가 거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성과

- 선전시 탄웨이중(覃偉中) 시장은 신년사에서 2022년 선전시의 GRDP가 전년보다 3.3% 늘어난 3조 2,400억 위안 안팎이라고 밝힘
  - 2월 2일 선전시 통계국이 발표한 ‘선전시 경제 운영 상황(經濟運行情況)’에 정확한 GRDP 수치가 실렸는데, 2022년 선전시 GRDP는 3조 2,387억 위안(약 615조 2,558억 원)을 기록하여 중국 전체 도시 GRDP 규모에서 3위를 차지했고 광둥성 내에서는 1위를 유지<sup>1)</sup>
    - 광둥성의 성도인 광저우시의 GRDP는 2조 8,839억 위안으로 선전시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고, 2022년에 사상 처음으로 중국 전체 도시 GRDP 규모 4위 자리를 2조 9,129억 위안인 충칭(重慶)시에 내주었음
  - 선전시의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보다 8.4% 증가했으나, 사회소비품 판매총액이 2.2%, 수출입 총액이 3.7% 늘어나는 데 그침
    - 2021년에는 고정자산투자가 3.7%, 사회소비품 판매총액이 18.5%, 수출입 총액이 22.8% 증가해서 2022년과는 정반대로 소비와 대외무역이 경제 성장을 이끌던 상황이었음
    - 비록 수출입 총액의 증가는 적었으나 수출 증가율은 13.9%를 기록하여, 30년 연속 중국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고수하고 있음
  - 2022년 전체 시민의 1인당 평균 GDP는 중국 31개 성, 시, 자치구 중 GRDP가 가장 큰 성인 광둥성 내에서 가장 높은 18만 3,188위안 달성

1) 선전시가 속한 광둥성 내 모든 도시는 다른 성의 도시가 전년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공보’를 3월에 발표하는 것과 달리,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매년 6월에 일제히 대외에 공개

- 민생 개선을 위한 예산 지출은 3,420억 위안에 달했고, 새로운 일자리는 18만 2,000개를 창출했으며, 장기 임대주택은 12만 채를 새로 공급했고,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년 연평균보다  $2\mu\text{g}/\text{m}^3$  낮은 연평균  $16\mu\text{g}/\text{m}^3$ 로 낮추었음

[표] 2021년과 2022년 선전시 도시 현황 비교 (출처: 탄웨이중 시장 신년사와 선전시 경제 운영 종합)

	2021년	2022년
상주 인구(명)	1,768만	1,756만
GRDP(위안)	3조 664억	3조 2,387억
경제성장률(%)	6.7	3.3
1인당 GDP(위안)	17만 3,663	18만 3,188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3.7	8.4
사회소비품 판매총액 증가율(%)	18.5	2.2
수출입 총액 증가율(%)	22.8	3.7
소비자물가 상승률(%)	0.9	2.3
실업률(%)	2.2	5.4

## 2023년 선전시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목표

- 탄웨이중 선전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3년 선전시 GRDP 성장 목표치를 중국 정부의 2023년 GDP 성장 목표치보다 1%가 높은 6% 안팎으로 제시
  - 지방일반 공공예산수입의 증가율은 6% 안팎, 공업생산 증가율은 6% 이상, 전 사회 연구개발경비지출은 선전시 전체 GRDP의 8% 이상으로 제시
    - 탄웨이중 시장은 제조업이 선전시의 근본임을 지적하며 혁신을 위한 전 사회 연구개발경비지출을 역대 최대 폭으로 쏟아붓기로 결정
- 1인당 주민 평균소득은 GRDP 목표 성장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시키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안팎으로 잡으며, 새로운 일자리는 8만 개를 창출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 이와 관련해서 과거 신년사에 없던 구체적 민생정책 제시
    - 400억 위안 이상을 투입하여 60개 프로젝트로 장기 임대주택 16만 채를 새로 건설하여 저소득층과 청년 계층의 주거 곤란 문제 해소
    - 양로와 육아 서비스를 강화하여 노인 가족만 사는 1만 가정의 집을 시정부가 나서서 개조하고, 노인복지 서비스센터를 20개 신설하며, 탁아소를 50개 신설하여 유아(幼兒) 육아 자리를 1만 6,000개 신설하겠다고 약속

-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2022년 연평균보다  $1\mu\text{g}/\text{m}^3$  낮은 연평균  $15\mu\text{g}/\text{m}^3$ 로 낮추겠다고 밝힘
  - 전년 초미세먼지 농도를 매년 신년사에서 정확한 수치로 밝히고 목표를 공개하는 것은 중국 주요 도시 중 선전시가 유일. 나쁜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선전시의 시정 방향을 보여 주고 있음

[http://www.sz.gov.cn/zfgb/2023/gb1278/content/post\\_10484054.html](http://www.sz.gov.cn/zfgb/2023/gb1278/content/post_10484054.html)

[http://qh.sz.gov.cn/sygnan/qhzx/dtxx/content/post\\_10428372.html](http://qh.sz.gov.cn/sygnan/qhzx/dtxx/content/post_10428372.html)

[http://tjj.sz.gov.cn/zwgk/zfxxgkml/tjsj/sjs/content/post\\_10405810.html](http://tjj.sz.gov.cn/zwgk/zfxxgkml/tjsj/sjs/content/post_10405810.html)

---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 도전 정신·공감에 기반하여 도정 이끌 것

일본 도쿄도 /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 / 신년사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2023년 신년사에서 도전 정신과 공감에 기반한 도정(都政)을 주문하면서, 팬데믹·에너지 위기·분쟁과 같은 글로벌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도쿄, 저출생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도쿄의 미래상을 강조함

### 배경: 2023년은 간토대지진 100주기를 맞이하는 해

- 2022년 말, 도쿄도는 간토대지진 100주기를 맞이하여 ‘도쿄(TOKYO) 강인화(強靱化) 프로젝트’를 수립
  - 도쿄 강인화 프로젝트에서는 도쿄 도민의 안전·안심 생활을 도쿄도가 나서서 지키는 사명을 강조
  - 앞으로 도쿄 도정의 방향은 이 프로젝트와 연동하여 조정

### 도전자의 기개로 도정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

- ‘챌린지 정신’에 기반하여, 다양한 업무 방식을 추진하고 서로의 차이를 넘어 서로 인정하는 공생 사회의 실현 목표를 도정에 반영
- 도정의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신속한 구현에도 도전자 정신이 필요

### 넓은 시야에 기반을 둔 정책의 연마가 요구됨

- 에너지 문제, 분쟁,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이 발발
  -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공급 불안, 기록적인 가뭄 및 풍수해 등의 발생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
  - 세계 각국 도시는 재생 에너지 중심의 그린 시프트를 추진 중
- 도쿄도의 앞으로 정책은 이러한 글로벌 시류를 반드시 고려하여 수립
  - 신축 주택 태양광 설치 촉진 조례, 수소 에너지 이용 확대 정책 등을 도쿄도는 이미 실시 중
  - 도쿄도청 직원들의 해외 연수 및 견문 확대를 지속하여 실시할 예정

## 저출생 문제에 대해 도쿄도의 주도권(이니셔티브) 확보 필요

- 도쿄도는 저출생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
  - 2016년에 취임한 현 도쿄도지사는 임기 초반부터 보육 시설 입소 대기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
  - 하지만 2023년 일본 중앙정부의 국가 예산안에는 저출생 해소에 관한 적극적 자세가 확인되지 않음
  - 이에 도쿄도는 올해부터 ‘아동 정책 제휴실’을 신설하여 ‘칠드런 퍼스트’ 정책 기조를 확고히 할 예정
- 2023년도 도쿄도 예산안에는 출생뿐 아니라 성장 과정의 지원책이 포함
  - 구체적으로는 0세부터 18세의 모든 아동에 대하여, 월 5,000엔의 양육비 지원을 결정

## 맺음말: 2023년은 공감의 정신을 기반으로 도쿄 대변혁의 한 해가 될 것

- ‘잃어버린 30년’으로 일본 및 도쿄의 존재감은 떨어진 상황
  - ‘도쿄에서 일하고 싶다’, ‘도쿄에서 꿈을 이루고 싶다’는 인재를 모으기 위해, 지속해서 도전해 나가는 도쿄도정이 되어야 함
- ‘지속 가능한 하이 시티테크 도쿄(Sustainable High City-Tech.Tokyo)’를 기치로 삼은 도쿄도정 추진
  - 이미 축적된 기술과 지식,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도쿄의 ‘대개혁’을 추진할 것이며, 이는 나아가 일본의 변화를 추동케 할 것

[https://www.metro.tokyo.lg.jp/tosei/governor/governor/katsudo/2023/01/04\\_00.html](https://www.metro.tokyo.lg.jp/tosei/governor/governor/katsudo/2023/01/04_00.html)

김 영 준 통신원, kyjoon@g.ecc.u-tokyo.ac.jp



## 세계도시동향 제549호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3년 4월 17일

—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 도시의 정책 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song@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http://www.si.re.kr)